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0.5

마카오 선교 이야기

T. 그리스도 우리의 빛

안녕하세요? ‘코로나19’라는 세계적인 재난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더 소중하고 간절하였습니다. 다행히도 한국의 상황은 그 기세가 꺾여가고 선거를 하는 등 많은 분들의 새로운 바람과 희망을 다시 일으켜 새봄과 함께 새기운이 일어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저는 마카오에서 선교하고 있는 조진미 마리안나 수녀입니다. 마카오에 있는 파티마의 성모성당에서 본당수녀로 일하고 있어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하던 지난 2월에 마카오는 빠르게 도시를 봉쇄하고 모든 집회를 금지했기에 본당에서 하는 모든 행사도 취소되었지요. 사순시기와 세례성사를 준비하고 있던 터에 모든 것이 멈춘 상태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하나 고민하던 차에 본당에 늘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야기도 나누셨던 독거노인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마침 본당에 많은 우유가 들어와서 저는 우유를 들고 그분들께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계시는지그 들려 다볼수있는 기회가 되어 더 다가가고 가까워지는 느낌에 보람도 있었지요.



그중 한 어르신과의 일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분은 늘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입니다. 성당에 오셔도 언제나 몸을 굽으시고 고통을 호소하시며 성수를 달라하셨지요. 그분의 집에 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내심 매우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분이 성당에 오셔서 고통을 호소하실 때 무심하게 듣기만 했던 저의 태도가 생각나 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 집은 그야말로 쓰레기 더미이고 어르신은 냄새나는 침대에 누워계셨습니다. 저는 어르신을 일으켜 목욕을 시켜드리고 좋아하신다는 팔죽을 사다 먹여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연신 “수녀님 구해줘서 고마워요” 하십니다. 어르신과 대화하여 까리따스 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수녀님께 연락하고 어르신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의논하고 몇칠 동안은 어르신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분의 표정이 달라지는 모습에 제 마음도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느님은 사랑으로 우리 사이에 함께 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어렵고 다소 우울해지기 쉬운 상황이었지만 제게 하느님은 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십니다. 또 그것을 살았을 때 느껴지는 예수님의 존재감은 부활하셔서 형제들을 찾아와 함께 먹고 마시며 보살피시는 듯이 그렇게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듯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카오라는 작은 도시에서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어머니의 병환으로 잠시 한국에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나 신앙생활을 보여주시고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신 어머니이십니다. 그분의 영혼이 하느님 사랑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리며, 저 또한 선교사로서 살아가며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많은 분들의 관심과 기도가 있기에 결코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후원해주시는 형제자매님께도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안에 함께 하시는 하느님을 믿으며 굳건히 이겨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조진미 마리안나.fmm



마리아는 성령이 자신 안에
 성부의 일을 완성하시도록
 전적인 사랑의 순응성으로,
 또한 신앙과 겸손한 봉사로
 자신의 전 존재를 바치셨다.
 (fmm 회헌 2항)



“어플루엔자”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

멜로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대사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그치고 나면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살아도 될까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 삶의 방식을 멈추고 돌아보게 했습니다. 전 국민이 외출을 삼가고, 예전만큼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입게 된 손실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우리 삶이 얼마나 소비에 의존하고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지요. 그리하여 우리 주위에 이미 창궐해 있는 또 다른 유행병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어플루엔자’(Affluenza)입니다.

‘어플루엔자’는 ‘풍요’라는 뜻의 영어 ‘어플루언스(affluence)’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인플루엔자(influenza)’를 합성한 것으로서, 소비에 중독되어 점점 더 많은 것을 추구하는 양상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되도록 많은 물건을 만들고, 사고, 쓰고, 버리게 하는 구조. 지금까지 소비주의는 ‘풍요로움’이라는 이미지와 맞물려 하나의 축복처럼 여겨졌습니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 반짝 반짝 빛나는 상품들로 가득 채워진 대형 마트나 백화점,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물건을 사고. 매스컴에서 이런 장면을 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잘 돌아가는구나!’ 하고 생각할 것입니다.습

그러나 소비주의는 이미 생태환경문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비주의는 자원을 고갈시키고 물, 공기, 토양 등 환경을 오염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물건을 만들어 내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소비주의가 생태환경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도 흐트러 놓는다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물건을 사도록 만들기 위해 소비주의는 ‘광고 산업’과 손을 맞잡습니다. 환상의 콤비이지요. 그리고 이 광고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환상’ 속에 살도록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합니다.

광고는 더 좋은 물건을,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 행복은 결코 도달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 아주 잠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나, 그 보다 더 나은 물건은 또 나올 테니까요. 또한 광고는 불안과 불만을 조성합니다. “내 아이의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은 바로, 저 학원을 보내지 않아서인가?” 피부가 희면, “좀 더 까무잡잡한 게 낫지 않을까?” 피부가 검으면, “좀 더 흰 피부가 예뻐 보이지 않을까?”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남자의 성공은 ‘그 면도기’를 사용해서가 아니며, 화목한 가정이라면 반드시 ‘이 치약’을 사용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심리학자 마이클 아가일 (Michael Argyle 1925-2002)은 「행복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행복의 요건으로 인간관계, 일, 그리고 여가시간을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주의와 광고는 사람들이 진짜 필요와 욕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저 ‘소비’를 통해 공허감을 채우도록 만듭니다. 소비주의에서 참된 만족이란 결코 얻을 수 없습니다.

소비사회가 제공하는 상품과 일반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은 갈수록 차이가 벌어

지게 됩니다. 소비주의를 쫓아가다보면 결국 수입과 지출을 맞출 수 없고 사람들은 빚을 지게 됩니다. ‘빚을 지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어플루엔자’의 양상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당장은 소비를 촉진할 필요도 있겠지만, ‘절약’과 ‘검소함’이라는 균형을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코로나 사태가 닥칠 때, 지금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영주 스텔라. fmm

2020년 5월 성모 성월을 맞이하여 신자들에게 보내는 서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5월 성모 성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달은 하느님 백성이 복되신 동정 마리아를 향한 사랑과 신심을 더욱 각별히 온 마음을 다하여 표현하는 때입니다. 우리는 전통적으로 5월에 집에서, 가정 안에서 묵주 기도를 드립니다.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으로 여러 제약이 있는 이때에 이처럼 가정 차원에서 드리는 묵주 기도는 영성적 관점에서도 우리에게 더욱 더 소중하게 다가옵니다.

따라서 저는 5월 한 달 동안 모든 이가 가정에서 묵주 기도를 드리는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나가도록 제안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여러 사람이 함께 묵주 기도를 바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판단하여 어느 쪽이든 가능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치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묵주 기도를 바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소박함입니다. 따라 하기에 좋은 기도 형태들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저는 묵주 기도를 마칠 때 드릴 수 있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문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해 드립니다. 저 역시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과 영적으로 하나 되어 이 기도를 바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서한에 기도문을 첨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얼굴을 다 함께 바라봅시다. 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 가정으로 더욱 하나 되어 이 시련을 극복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특히 가장 고통 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부디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큰 사랑을 담아 교황 강복을 보냅니다.

로마 성 요한 라테라노 대성전에서

2020년 4월 25일

프란치스코

성모님께 바치는 기도 1

성모 마리아님,
언제나 구원과 희망의 표징으로
저희의 길을 밝혀 주소서.

병자의 치유이신 성모님,
늘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어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고통에 함께하셨으니
저희도 성모님께 의탁하나이다.

저희의 구원이신 성모님,
갈릴래아 카나에서처럼
이 시련의 때가 지나고
다시 기쁨과 축제의 때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서는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마련해 주실 것을 믿나이다.

거룩한 사랑의 성모님,
저희가 아버지의 뜻을 충실히 따르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몸소 저희의 고통을 짊어지시고 저희의 슬픔을 떠안으시어
저희를 부활의 기쁨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회원님들의 희생과 수고, 사랑으로 보내주신 후원금에 감사드립니다.

4월1일 ~ 4월30일까지 입금하신 후원자 명단

(재)고려문화재단 강경아 강미현 강숙자 강승완 강신연 강연호 강지우(왕효준)
고대완 고승현 고월순 고유연 고재영 고지영 고희숙 공해용 구영희 구웅희 구윤정
구인순 권순익 권영오 권진선 금부동 금창호 김경미 김광기 김광자 김귀선미리암
김귀선스테파니아 김남기 김덕철 김도상 김도영 김동일 김동현루가 김두현 김득현
김두환(김철형) 김미리 김미애자 김민규 김상규 김상률 김상연 김상태 김셋별
김상연(화령) 김병수케냐 김선옥 김성원 김수경 김수자세실리아 김숙자만나
김순철 김시운 김시준 김애자 김연진 김영덕스테파노 김영덕프란치스코 김영옥
김영운 김영재(허갑수) 김영주 김영준 김옥림 김옥주 김용덕 김용수 김용식
김용자(윤소라) 김용주 김용준 김원진 김유정 김재식 김재옥 김정매(박치현)
김정웅(김명신) 김정임엘리사벳 김정주 김주옥 김준희김지혜 김진선 김진식
김진숙알테군다 김진옥 김춘자루갈다 김춘자안나 김태옥 김해자 김현숙(최지명)
김혜겸 김호생 김홍양 김희재 나숙희 나정순 남봉원 노미경 노병덕(권정희)
노봉근 노석심 노연주 노유리 노정애 논현동성당 류순자 명영희 문경희 문성식
민정웅 박규성(정현정) 박금난 박민선 박병주 박성길(정은아) 박성준 도미니꼬
박성현 박수경 박순옥 박승민 박용숙데레사 박원서 박윤실 박은정 박재용 박정선
박정순(임현서) 박정식 박정연 박찬순 박태분 박현희 박홍권 박화자 박효정
박희순 방진 배인호 배장열 배철희 백미자 백성대 변복자 변태식 서덕순 서춘자
서태진 서향란 서현수 성상모 성영주 소재록 손순덕 손은주 손향기 송비아
송순이 송승윤(김영임) 송영희 송정애 송채영 송혜경 신승일 신주선 신주화
신희식 심귀선 아가맘2호 안미령 안양금 양영자 양윤석 양종한 여현주 오보
오숙자 오영희 오옥형(최민귀) 오정자 오지연 우복명 우영희 운남동빈첸시오 원
ENG 원세경 유미경 유병춘 유영재 유은정 유춘성 유혜정헤레나 유희숙프란치스
육동배 윤규현 윤명희 윤문섭 윤미숙데보라 윤미숙파우스티나 윤보미 윤봉수
윤순자 윤순희 윤정희 윤한희 윤현숙 이갑수 이경로 이관훈 이광희 이귀순
이기향 이기혁 이남순 이동세 이동준 이동현 이명순(이선영) 이명혜 이미란
이미자 이민희 이상문 이선경첼마 이성엽 이성호(조봉례) 이연재 이영복 이영애
이옥자 이용길 이유순 이윤신 이은정 이은주 이인권 이인동 이인숙 로사 이정원
이인숙(경동메디칼) 이정란(최윤) 이정숙데레사 이정숙마리아 이정준 이종옥
이준우 이지인프란체스카 이태금 이필단 이항남 이해일 이혜숙 이홍식 인용석
인후작은형제 임수경 임승옥 임윤섭 임정태 임혜숙 임호 장민정 장세옥 장영표
장우영 장원태 장은미 장현아 전순자 전영관 전충엽 정경원 정경필 정동락
정명국 정미영 정복순 정부강정석영 정성민 정소영 정숙자 정승한 정영숙 정옥희
정재영 정재훈(정지호) 정진명 정진숙 정향숙첼마 정혜경 정희파키스탄 조국제
조근미 조남섭 조명숙 조상위 조수미 조일수 조재호 조정희 조혜영 조희공
조희무 주)가나스틸 진성자 진신아 차영자 최규범 최금영 최두진 최성순 최숙규
최연희 최영애 최옥자 최원단 최원철 최은실 최인석 최일순 최지은 최향미
최혜정 최효순 최희선 추상식 추수옥케냐 추영숙 추종현 태계남 파키스탄박진
평화장터 하옥경 한기훈 한순옥 한순희 한영미 한옥선 한은희 한진경
한효정(권오현) 허정자 현경미 홍말숙 홍명숙 홍미자 홍민선 홍민희 홍세아
홍수봉 홍승희 홍은숙 홍익기 황경희 황달수 황인복 황정숙